

크리스천 북한출신 청년들이 인식하는 종교란 무엇인가*

What is Religion as Perceived by Young Christian North Korean Defectors?

전 주 램 (Jooram Jun)**

ABSTRACT

North Korean-born young adults are positioned at a dual transition stage, simultaneously undergoing defection and integ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during which their values and worldviews are actively reconstructed.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relig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functional effects of religious participation on socia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stability, whil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these young adults conceptualize and construct religion. Approaching religion not as an external resource but as a cognitive meaning system through which life is interpret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North Korean-born young adults define and conceptualize religion and how such religious concepts relate to meaning-making and life choices. A qualitative case study design was employ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May to July 2024 with five North Korean-born young adults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and resettled in South Korea during young adulthood. The analysis was interpreted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religious meaning construction and the symbolic structure of relig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ir religious perceptions are formed within a framework that presupposes a transcendent being while maintaining epistemic openness regarding its existence, understanding religion as a system constituted through belief and repeated practice as well as a moral and normative reference. Religious contact occurred mainly during defection and migration processes or in situations of crisis, where religion was experienced as a resource for survival and protection, shaped significantly by relation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Their understanding of God demonstrated a spectrum of interpretations characterized by a separation

* 2026년 2월 10일 접수, 3월 3일 최종수정, 3월 3일 게재확정.

** 서울시립대학교(University of Seoul) 교직원 강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ramidream@hanmail.net

between knowledge and belief, including metaphors of the mind, interpretations of God as Creator, and internalized conceptions of the divine. Religion also functioned as a source of psychological stability, self-reflection, hope, and meaning-making, while simultaneously maintaining tension with personal agency, as participants engaged in religious communities selectively and emphasized self-determination rather than total devo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religion as a cognitive meaning system rather than merely as a functional factor in adaptation.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Youth, Christianity, Religious Concepts, Qualitative Case Study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 배경 인구의 유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명 내외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약 2,900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국경 봉쇄와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신규 입국자는 감소하였으나, 누적 인원은 약 3만 4천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2026).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일시적·예외적 집단이 아닌, 한국 사회의 지속적 구성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가운데 북한출신 청년은 교육 이행, 노동 진입, 진로 선택, 관계 재구성 등 주요 생애 전환이 집중되는 시기에 남한 사회에 편입되는 집단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노출과 재구성의 밀도가 현저히 높은 특징을 지닌다. 청년기는 신념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시기이자, 이후 삶의 궤적을 규정하는 핵심 선택이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경험되는 문화적 충돌과 적응 방식은 개인의 장기적 삶의 방향은 물론 사회 통합의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Mezirow, 1991).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는 가치관, 세계관, 삶의 의미 체계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종교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종교 및 종교 단체와의 접촉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종교 단체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전주람·김은희, 2025).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경험 연구는 종교가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으며, 문화적·정체성 관점에서 종교가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함이 지적되었다(장보석, 2022).

그러나 기존 연구의 다수는 종교 참여가 정착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응적 기능이나 정서적 지지 제공과 같은 결과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종교를 외재적 자원이나 도구로 환원하거나, 신앙 유무 혹은 참여 여부와 같은 단일 지표로 변수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종교를 경험하는 주체인 북한출신 청년 당사자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 체계로 구성하며, 그 개념을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시 말해, 종교 개념의 구조와 형성 과정 자체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 단위로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종교를 개념 차원에서 탐구할 필요성은 종교심리학 및 종교이론 연구에서 이미 강조되어 온 바이다. Hood, Hill, Spilka(2009)는 종교를 단순한 의례 참여를 넘어 신념, 정서, 행동이 통합된 심리적

복합체로 규정하며, 이러한 종교적 개념 체계가 개인이 신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Pargament(1997) 역시 종교를 개인이 삶의 시련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획득하게 하는 핵심적 자원으로 이해하면서, 종교 경험의 인지적·해석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종교를 다차원적 경험 체계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Mircea Eliade(1959)는 인간이 시간과 역사라는 불가역적 조건을 인식하고 이를 초월하려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화와 의례가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종교와 교육이 인간의 성격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유사한 목표와 기능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출신 청년의 종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단순한 적응 자원이나 신앙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해석하고 방향 짓는 인식적 개념 체계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출신 청년들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 신의 존재와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교 개념이 그들의 삶의 의미 구성과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적 자료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를 둘러싼 기존의 기능 중심적 연구를 넘어, 종교 개념의 내적 구조와 형성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북한출신 청년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출신 청년이 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념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북한출신 청년은 종교를 어떤 개념적 범주 속에서 이해하는가? 이러한 종교 개념은 삶의 의미 구성 및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II. 선행 연구

북한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정책적 지원과 정착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0년대 이후 생애과정과 주체적 경험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북한출신 청년은 탈북 경험과 남한 사회로의 이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의 전환기에 놓인 집단으로, 교육 이행, 노동 진입, 진로 선택, 관계 재구성 등 주요 생애 전환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회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재구성 밀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은 북한출신 청년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신념 변화, 삶의 의미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며, 이들을 단순한 적응 대상이 아니라 인식 체계가 재형성되는 주체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정은미, 2014 ; 최지영 외, 2021).

이와 같은 논의는 종교를 이해하는 이론적 전제와도 연결된다. 종교는 학문적으로 단일한 정의에 수렴되지 않으며, 대체로 초월적 존재나 신성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실체적 정의와, 사회 통합·

의미 제공·심리적 안정과 같은 역할에 주목하는 기능적 정의로 구분되어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종교를 고정된 교리 체계가 아니라 개인이 세계를 해석하고 경험을 조직하는 인지적 의미 체계로 이해하는 접근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종교를 외재적 제도나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세계관·가치관·자기 이해를 구성하는 개념적 틀로 본다는 점에서, 전환기의 청년 집단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북한 사회의 종교 이해 구조 역시 이러한 분석에 필수적인 배경을 이룬다.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 체계에서는 주체사상과 수령 중심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사회 통합과 의미 부여의 중심 원리로 기능해 왔다. 교육과 사회화 과정에서는 종교가 봉건적 잔재 또는 외세 침투의 수단으로 서술되며,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도적으로 재생산된다. 따라서 북한출신 청년은 종교를 단순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대비항 또는 금기적 영역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남한 사회에서 종교를 접하는 방식과 개념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종교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다루어져 왔다. 다수의 연구는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 계열 종교 공동체와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종교 공동체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종교 활동 참여 경험이 심리적 안정,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등 적응 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실증 연구도 축적되어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종교가 새로운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개인이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하였다(장보석, 2022).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종교를 주로 외재적 자원이나 적응을 돕는 도구로 환원하여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교는 신앙 유무나 참여 여부와 같은 단일 지표로 변수화되거나, 적응 효과와 정서적 지지라는 결과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종교를 경험하는 주체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출신 청년이 종교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신의 존재와 믿음을 어떤 인식적 틀 속에서 구성하며, 이러한 종교 개념이 삶의 의미 해석과 선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기존 연구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종교심리학 및 종교이론 연구에서는 종교를 단순한 의례 참여나 제도적 소속이 아니라, 신념·정서·행동이 통합된 인식적 개념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Hood et al., 2009 ; Pargament, 1997). 국내에서도 종교를 다차원적 경험 체계로 파악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나(유요한, 2016), 이러한 논의가 북한출신 청년의 구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경험적 연구로 연결된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는 북한출신 청년의 종교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 종교를 적응 자원이나

신앙 여부의 문제가 아닌 삶을 해석하고 방향 짓는 인식적 개념 체계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를 적응을 돕는 외재적 자원이나 참여 여부의 문제로 다루는 기존 접근과 달리, 북한출신 청년이 종교를 어떠한 개념적 범주 속에서 이해하고 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관심은 종교 활동의 효과가 아니라, 종교를 정의하는 언어와 범주, 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 믿음과 삶을 연결하는 인식 구조에 있다. 다시 말해, 종교를 외적 행위나 제도적 소속이 아닌, 세계를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조직하는 인지적 개념 체계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출신 청년을 단순한 적응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인식적 행위자로 이해하려는 이론적 전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은 종교 인식의 인지적 구조에 주목하는 Kenneth Pargament(1997)의 종교적 의미구성 관점과, 종교 상징의 의미 구조를 설명한 Mircea Eliade(1959)의 관점을 이론적 틀로 삼아 해석하였다. 이러한 틀은 북한출신 청년의 종교 개념을 단순한 신앙 여부가 아니라 의미 체계로 이해하는 데 분석적 준거를 제공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출신 청년이 종교를 어떠한 개념적 범주 속에서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교 개념이 삶의 의미 구성 및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종교 경험의 빈도나 신앙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보다, 참여자의 인식 구조와 의미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현상을 맥락과 분리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Yin(2018)은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례연구가 특히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Stake(1995)는 사례의 고유성과 참여자의 관점을 존중하는 해석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출신 청년 집단을 하나의 집합적 사례(collective case)로 설정하고, 이들이 공유하는 종교 개념의 공통 구조와 의미 형성 양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 1> 연구절차 및 방법 | | | |
|------------------------------|-------------|---|-------------------------------|
| 구분 | 내용 | 세부 설명 | 연구 시기 |
| 연구 설계 | 질적 다중 사례연구 | 북한출신 청년의 종교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함 | 2024.3-2024.8 |
| 참여자 선정 | 세평적 사례선택 | 선정 기준: ① 북한 출생 후 청년기 한국 입국·정착 ② 입국 이후 기독교 접촉 또는 소속 경험 ③ 대학 재학 또는 직업 활동 중인 이행기 청년 | 2024.4 |
| 1차 면담 | 반구조화 심층면담 | 인구사회학적 배경, 탈북 및 정착 경험, 종교와의 최초 접촉 경험, 종교 인식 형성 배경 탐색 (1인당 90-120분) | 2024.5-6 |
| 2차 면담 | 심층 보완 면담 |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의 정의, 신 인식, 믿음과 삶의 선택·책임 간 관계 탐색 (1인당 60-90분) | 2024.6-7 (1차 면담 후 3-4주 간격) |
| 연구 질문 (면담 도구) | 반구조화 질문지 활용 | <p>①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종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종교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북한에서의 종교 인식과 현재의 인식은 어떻게 다른가?</p> <p>② 종교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종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가? -종교가 위로, 규범, 공동체, 혹은 다른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종교가 없었다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가?</p> <p>③ 기독교 접촉 경험은 사고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처음 기독교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신(하나님)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 -세계관이나 인간관, 책임의식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p> <p>④ 믿음과 삶의 선택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종교적 믿음이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는가?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개인적 확신에 머무는가? -종교적 신념과 현실적 판단이 충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했는가?</p> | |
| 자료 분석 | 주제분석 | 전사 자료 반복 숙독 → 의미 단위 추출 → 초기 코드 생성 → 하위범주 및 상위범주 도출 → 이론적 해석 | 2024.6-8 |
| 타당화 작업 | 신뢰도 확보 전략 | ① 반복적 비교 분석 ②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③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④ 연구자 성찰 메모 작성 | 분석 전 과정 |

2.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세평적 사례선택(purposive sampling)에 따라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출생하여 청년기에 한국 사회에 입국·정착한 경험을 지닌 자. 둘째, 입국 이후 기독교와의 접촉 또는 소속 경험이 있으며 종교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비교적 명확히 서술할 수 있는 자. 셋째, 면담 당시 대학 재학 또는 직업 활동을 수행 중인 청년으로, 학업·노동·관계 형성 등 사회적 이행 과정에 놓여 있는 자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총 5명(여 4명, 남 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4.6세이다. 입국 연도는 2014년부터 2019년 사이로, 2024년 기준 한국 거주 기간은 평균 6.4년이다. 사례연구는 통계적 대표성을 전제하지 않으며, 사례 수는 연구 목적과 논리적 복제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Yin, 2018). 또한 질적 연구에서 표본 규모의 적절성은 수적 크기보다 자료의 풍부성과 이론적 포화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동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적 면담 연구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사례에서도 핵심 범주가 포화에 도달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반복적 비교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참여자 수를 확정하였다.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설계와 분석을 포함한 전체 연구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이다.

<표 2>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 연번 | 이름(가명) | 성별(나이) | 고향 | 종교 | 입남 시기 | 직업/소속 | 결혼여부 |
|----|--------|--------|----|-----|-------|---------------|------|
| 1 | 김솔 | 여(21세) | 혜산 | 기독교 | 2019년 | 대학교 재학 | 미혼 |
| 2 | 이진주 | 여(23세) | 혜산 | 기독교 | 2014년 | 대학교 재학 (휴학 중) | 미혼 |
| 3 | 이천 | 남(21세) | 청진 | 기독교 | 2018년 | 대학교 재학 | 미혼 |
| 4 | 정민영 | 여(29세) | 청진 | 기독교 | 2018년 | 간호조무사 | 미혼 |
| 5 | 김현빈 | 남(29세) | 평양 | 기독교 | 2019년 | 대학교 재학 | 미혼 |

참여자 1 김솔은 2019년 한국으로 입남하였다.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한 편이며, 현재 대학생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다소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적 특성을 보인다. 한국에 와서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녀야 할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취질지 고심하며 초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그러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무엇이라도 해

야겠다는 의지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에 도전하였으며, 운이 좋게도 좋은 사장을 만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현재도 자신이 ‘북한’에서 온 사람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북한’ 출신이자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

김솔은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기보다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유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 사회에서 이상화된 인물들을 신적 존재로 인식한 경험은 없으며, 이들은 롤모델 혹은 혁명적 지도자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녀의 종교 경험은 탈북과 이동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특히 극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을 ‘붙들 수 있는 존재’로 경험하였다. 어머니의 입국을 기도하며 조건부 신뢰를 표현한 경험은 종교가 위기 상황에서 상호성에 기반한 호소의 대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기도 응답 경험 이후에도 믿음은 완전한 확신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긴장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종교 간 비교 탐색을 통해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솔에게 종교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촉진하고 삶을 정리하게 만드는 실천적 의미 체계로 기능한다. 신의 비가시성을 ‘마음’의 비가시성과 유비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함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실재할 가능성을 말하였다. 종교는 절박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상징적 대상이자 삶의 도덕성과 방향성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경험되고 있다.

참여자 2 이진주는 2014년 먼저 어머니가 한국에서 정착한 이후, 이종사촌과 함께 한국으로 입남하였다. 종교를 ‘절박한 상황에서 안을 잠재우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진주는 종교를 신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단정하기보다 삶의 위기와 불안을 완화하는 실천적 장치로 이해하였다. 신은 항상 마음속에 상주하는 대상이라기보다 행복하거나 절박한 순간에 호출되는 존재로 경험된다. 기도는 소망 성취의 도구이자 자기 안정을 위한 행위로 기능한다.

그녀는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을 신적 존재로 인식한 적은 없으며, 혁명 지도자를 롤모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존재했으면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보이며, 신의 실재 여부를 유보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호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후 세계나 영적 감시 개념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하였다. 종교는 절대적 신념 체계라기보다 절박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완충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참여자 3 이천은 종교를 ‘자신의 삶을 만든 원인 제공자’로 해석한다. 그는 종교를 자신이 한국까지 오게 된 삶의 경로를 설명하는 근원적 원인으로 이해하며, 인간적 관계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준 궁극적 주체를 신으로 인식한다. 예수를 선택한 이유는 창조주 개념 때문이며,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구조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완전한 확신이

라기보다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의 인정에 가깝다. 종교는 기도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일종의 개인적 의식과 유사한 형태로 작동한다. 축구 경기 전 골대를 두드리는 행위처럼 신앙 역시 삶의 중요한 순간에 수행되는 상징적 행위로 경험된다. 그는 신의 존재를 전제하면서도 종교적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한다. 종교는 삶을 해석하는 틀이면서 동시에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이다.

참여자 4 정민영은 2018년 입남하였으며 간호조무사가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는 종교를 자발적 확신이라기보다 공동체 참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앙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와 신앙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그것이 곧바로 내면화된 확신으로 고정되지는 않았다. 그의 신앙은 공동체 분위기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개인적 납득과 비판적 성찰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한때 기도 경험을 통해 신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현실 경험과의 괴리를 마주하면서 신앙에 대한 해석은 변화하였다. 특히 빈곤 지역에서의 봉사 경험은 ‘신의 뜻’이라는 의미 부여가 현실의 고단한 상황과 충돌하는 지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신앙은 절대적 확신이라기보다 삶의 조건 속에서 재해석되는 인식 구조로 전환되었다. 또한 그는 직접적인 영적 체험을 주장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절대적 권위에 대해 일정한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신의 존재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태도를 보인다. 종교는 그에게 고정된 신념 체계라기보다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의미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참여자 5는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북한의 제1고등중학교 졸업 후 17살 되던 해 군 복무를 시작하여 10년간의 군 복무를 하였다. 군 복무 중 중동지역으로 파병되어 북한의 대외무역 건설사업소의 의사 겸 통역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중동지역의 북한 무역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역 대표의 수행비서 겸 부대표로 근무하다가 북한의 계급, 계층에 따른 신분사회의 모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희망이 없다는 판단 하에 남한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했다. 현재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대학교에서 회계학과 북한학을 전공하며, 교수자의 길을 걷고자 학업을 수행중에 있다. 지속적인 연구 관심사로는 남북의 분단과 두 국가론, 북한의 인프라, 시장경제를 위한 북한 경제법, 북한이주민들의 정체성, 한국의 저출산과 북한이주민, 한국사회, 북한사회 등이 있다. 김현빈은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이를 ‘신을 확신하여 믿는 신앙’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신앙 고백보다는 인간적 관계와 가족적인 공동체 분위기에서 찾고 있다. 특히 고향 출신 지인들이 속한 소규모 교회 공동체에서 정서적 지지와 연결감을 경험하며 종교 참여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게 신은 명확한 신앙 대상이라기보다 ‘인간의 힘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가능성 차원에서 열려 있는 개념이다. 신의 존재를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상징적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북한 시기에도 위기 상황에서 하늘에 기도하던 경험과 연결되며, 특정 종교 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기보다 보편적 호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특히 그는 종교를 외부 권위에 대한 의존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신을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 안의 기준’으로 재구성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중심에 둔다. 그는 조언을 수용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고, 실패와 성공 모두 자신의 선택 결과로 감당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회기의 반구조화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2024년 5-6월에 실시되었으며, 1인당 평균 90-120분이 소요되었다. 이 회기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탈북 및 정착 과정, 종교와의 최초 접촉 경험, 종교 경험이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2차 면담은 1차 면담 종료 후 약 3-4주의 간격을 두고 2024년 6-7월에 진행되었으며, 평균 60-90분이 소요되었다. 2차 면담에서는 1차 자료의 예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교의 정의와 의미,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믿음과 삶의 선택·책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특히 종교를 제도적 소속이나 신앙 여부가 아닌 삶을 해석하는 인식적 개념 체계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응답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연구 윤리를 위해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동의 하에 녹음되었으며, 전사 후 익명화 처리하였다. 참여자는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엄격성

자료 분석은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원칙을 참고하여 수행되었다(Braun & Clarke, 2006).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숙독하며 자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형성한 후,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이후 유사한 코드들을 통합하여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하위범주 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범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이론적 의미를 정교화하였다. 범주 체계는 전체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수정되었으며,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개념적 구조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범주는 종교를 하나의 의미 체계로 이해하는 이론적 틀에 비추어 해석되었다.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적용하였다(Denzin, 1978 ; Flick, 2018).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범주와 해석은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1인과의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통해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이론이나 연구자의 선이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을 실시하여 일부 핵심 범주와 해석 결과를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해당 해석이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검토받았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해석의 도구이자 매개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 메모를 작성하고 자신의 선이해와 이론적 전제가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적으로 점검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북한출신 청년들이 인식하는 종교개념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종교 인식은 단일한 신앙 체계로 수렴되기보다는 여러 차원의 의미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총 5개의 상위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종교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틀, 종교 접촉과 형성의 생애적 맥락, 신 인식의 구성 방식과 믿음의 스펙트럼, 종교의 심리·실존적 기능, 종교 경험과 개인 주체성의 역동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2>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종교개념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주요 내용 |
|--------------|---------------|--|
| 종교에 대한 인식 구조 | 초월적 존재로서의 종교 | 종교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신)를 전제로 하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이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이해됨.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한계 경험과 결부되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나 운명을 해석하는 틀로 작동함. |
| | 믿음으로 구성되는 체계 | 종교는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인간이 '믿는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체계로 이해됨. 종교는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개인이 믿기로 선택하고 그 믿음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됨. |
| | 도덕·삶의 규범 체계 | 종교는 인간을 바르게 살도록 이끄는 규범적 장치로 인식됨.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일상적 선택과 행동을 점검하는 준거틀로 기능함. |
| | 실존 여부의 유보적 인식 | 신의 존재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열어둔 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임.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신보다는,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며 상황과 경험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함. |

| | | |
|-----------------------|---|--|
| 종교 접촉과 형성의 생애적 맥락 | 탈북·이동 과정에서의 종교 접촉 절박한 상황에서의 신 호출 | 탈북 및 제3국 체류 과정에서 종교를 처음 접하며, 이를 신앙 대상이기보다 생존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인식함. 종교는 위험한 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통로로 경험됨. 가족의 생사, 탈출의 성공 여부 등 극도의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신에게 의지하는 경험을 함. 이때 신은 일상적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 기대어 볼 수 있는 존재로 호출됨. |
| | 타인의 권유와 환경적 영향 | 주변인의 권유, 교회 네트워크, 정착 지원 환경이 종교 유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개인의 자발적 선택 이전에 관계와 제도적 환경이 종교 경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
| 신 인식의 구성 방식과 믿음의 스펙트럼 | 인지와 믿음의 분리 마음에 빚대어 신의 존재를 설명함 창조주로서의 신 인식 | 신에 대해 '알고 있음'과 '믿고 있음'을 명확히 구분함. 종교적 지식이나 이야기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에는 거리감을 두는 태도를 보임.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느끼듯, 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함. 신의 존재를 과학적 증명보다 체감과 비유를 통해 이해함. 신을 인간을 창조한 존재로 인식하며, 개인의 삶의 경로와 사건을 신의 뜻이나 계획과 연결함. 삶의 굴곡을 우연이 아닌 의도된 흐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임. |
| | 내면화된 신 개념 | 신을 외부의 초월적 존재라기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로 해석함. 신은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방향을 제시하는 내적 기준으로 인식됨. |
| 종교의 심리·실존적 기능 | 심리적 안정과 위안 자기 성찰과 삶의 점검 소원 성취의 매개 | 기도와 종교 활동을 통해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고 정서적 안정을 경험함. 종교는 감정을 털어놓고 정리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로 기능함. 종교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함. 일상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내적 대화가 촉진됨. 종교는 개인의 바람과 소망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함.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자 마음을 정리하는 행위로 인식됨. |
| | 삶의 의미 부여 | 탈북과 정착의 경험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으로 재해석하게 함. 개인의 삶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 |

| | | |
|-------------------|-----------------|--|
| | 완전한 몰입에 대한 거리두기 |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맹목적 신앙이나 전면적 헌신에는 거리를 둬. 필요할 때 참여하되, 비판적 판단과 개인적 기준을 유지함. |
| 종교 경험과 개인 주체성의 역동 | 자기결정성의 강조 | 삶의 선택과 책임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함. 종교는 조연자일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의 주체는 개인이라는 태도를 보임. |
| | 공동체로서의 종교 경험 | 종교를 교리나 신앙 체계보다 관계와 소속의 장으로 경험함. 함께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적 경험이 종교의 핵심으로 인식됨. |

1. 종교에 대한 인식구조

북한출신 청년들은 종교를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를 전제로 한 체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포함하며, 이러한 점에서 일상적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종교를 객관적 사실이나 절대적 진리로 즉각 수용하는 태도와는 구별되었다. 참여자들은 종교를 “원래 거기 있어서 믿는 것”이라기보다, 개인이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형성되는 체계로 이해하였다. 즉, 종교는 외재적으로 주어지는 실체라기보다 인간의 믿음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드러난다.

“신이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믿으니까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딱 정해져서 있는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종교 같아요. 그냥 거기에 누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믿고 그러다 보니 체계가 되는 거 아닐까요?” (참 1)

참여자 1의 진술에서 종교는 초월적 실체의 객관적 존재 여부와 분리되어 있다. 그는 신의 실존을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믿음’이 종교를 성립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이는 종교를 존재론적 실체라기보다 인식론적 구성물로 이해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즉, 종교는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 비로소 체계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 확신을 유보하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저는 그걸 딱 잘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있다고 믿는 사람도 이해는 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렸다고는 못 하겠어요. 그냥 저는 확신까지는 못 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참 2)

이 발언은 신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이분법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인식 구조를 보여준다. 참여자 2는 ‘확신의 보류’를 자신의 현재 상태로 명명하며, 존재 여부를 가능성의 영역에 남겨둔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신앙의 미성숙이라기보다, 북한의 무신론적 사회화 경험과 남한의 종교 문화 사이에서 형성된 인식적 긴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절대적 부정에서 즉각적 수용으로 이동하기보다, 일정한 비판적 거리두기 속에서 의미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가끔 힘들 때 교회 가면 ‘이게 맞는 행동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이 생기는 느낌은 있어요.” (참 3)

참여자 3의 진술에서 종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확신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특히 “이게 맞는 행동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표현은 종교가 외부에서 강제되는 규범이라기보다, 개인의 일상적 선택을 점검하게 하는 내적 준거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종교가 형이상학적 확신의 문제를 넘어,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실천적 의미 체계로 이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참여자 4 역시 신의 존재를 절대적 확신의 차원보다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가능성의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신을 명확한 교리적 대상이라기보다 “삶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그 실재 여부에 대한 논증보다는 경험적 체감에 의미를 두었다. 이는 신 인식이 특정 참여자에게만 국한된 태도가 아니라, 다수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식 구조임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북한출신 청년들의 종교 인식은 초월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존재 여부에 대한 확신을 유보하는 구조를 보인다. 동시에 종교를 외재적으로 주어진 실체라기보다 인간의 믿음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체계로 이해하며, 일상적 선택과 행위를 점검하는 실천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체제 간 세계관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 기적 종교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존재론적 확정보다는 삶의 맥락 속에서 기능하는 의미 체계를 우선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유사한 인식은 다른 참여자들(참 4, 참 5)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

다. 일부 참여자들은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며, 종교를 절대적 진리라기보다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로 이해하였다. 이는 특정 개인의 특수한 태도가 아니라 집단 전반에 나타나는 인식 구조로 볼 수 있다.

2. 종교 접촉과 형성의 생애적 맥락

종교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생애 경험, 특히 탈북과 이동이라는 전환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탈북 및 제3국 체류 과정에서 종교와 처음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시기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 생존과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종교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접근 가능한 안전망이자 현실적 도움을 매개하는 통로로 인식되었다.

종교 접촉의 1차적 계기는 이동 과정에서의 구조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가족의 생사 여부, 탈출의 성공과 실패, 신변의 불안정성 등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신을 호명하거나 기도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는 교리적 이해를 전제로 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상징적 대상에 대한 호소였다. 즉, 종교는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능적 역할로 먼저 자리 잡았다.

종교 형성의 과정은 개인의 내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망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 주변인의 권유, 교회 네트워크, 정착 지원 환경 등은 종교 참여의 중요한 경로로 작용하였다. 특히 정착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제도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종교 공간은 정보 제공, 물질적 지원, 관계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 참여는 자율적 신념 선택이라기보다,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처음엔 믿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해서 따라간 거죠. 주변에서 다들 거기 가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됐어요. 그때는 종교라기보다는,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 1)

참여자 1의 진술에서 종교는 교리적 확신의 결과라기보다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다”는 표현은 종교 참여가 자율적 선택이라기보다, 접근 가능한 제도적·관계적 자원을 활용한 현실적 행위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종교가 생애 전환기에서 대안적 안전망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그때는 정말 불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신한테라도 매달렸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죠. 잘 되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기댈 데는 하나 있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참 3)

참여자 3의 진술은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종교가 심리적 의존 대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불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라는 표현은 신앙의 확신보다는 위기의 강도가 종교 경험을 촉발했음을 드러낸다. 이 경우 종교는 교리 체계로 이해되기 이전에, 불안과 공포를 완충하는 정서적 장치로 작동하였다. 또한 참여자 2는 종교 참여를 직접적인 신앙 고백 이전에 “환경이 허락한 선택지”로 설명하였다. 그는 정착 초기 단계에서 종교 공간이 사회적 연결망과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 참여가 곧바로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반복적 참여와 관계 형성을 통해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점차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종교 접촉과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맥락 속에서 전개된다. 첫째, 탈북·이동 과정에서 종교와의 1차 접촉이 이루어진다. 둘째, 극도의 불안과 위기 상황 속에서 종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자 심리적 의존 자원으로 기능한다. 셋째, 주변의 권유와 정착 환경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종교 참여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교리 중심의 신념 체계로 곧바로 형성되기보다, 생존과 정착을 지원하는 기능적 자원으로 먼저 자리 잡고 이후 경험의 축적과 의미 부여를 통해 신앙으로 재해석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종교 형성은 단선적인 신념 변화의 결과라기보다, 생애사적 전환과 구조적 조건, 관계적 맥락이 상호작용하며 점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교 형성 과정은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라기보다, 생존 전략과 사회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신 인식의 구성 방식과 믿음의 스펙트럼

신에 대한 인식은 단일한 믿음 체계로 환원되기보다는 인지, 경험, 해석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신에 대한 태도가 단선적 신앙/비신앙의 구도가 아니라, 해석 방식과 경험 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치되는 스펙트럼 구조임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식과 ‘믿고 있다’는 태도를 구분하였으며, 지식 차원의 이해와 신앙 차원의 신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 방식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일상적 경험을 은유로 전환하는 유비적 사고와 연결된다. 예컨대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신도 그렇다”는 인식은 추상적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경험 가능한 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하려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의 실존을 논증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가능성을 일상 경험에 비추어 합리화하는 인식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신을 인간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의 계획이나 뜻과 연결하여 의미화하였다. 이 경우 삶의 우연적 사건은 신적 의도 속에서 재해석되며, 개인의 경험은 종교적 해석 틀 안에서 통합된다.

동시에 신을 외부의 초월적 존재라기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로 이해하는 해석도 나타났다. 이 경우 신은 외적 권위로 작동하기보다는 선택의 순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적 윤리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참여자들은 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결정의 책임을 신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의미 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 2는 신의 존재를 ‘판단의 대상’이라기보다 “논쟁의 영역을 넘어서는 가능성”으로 두었다. 그는 확정적 신념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신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인식적 유보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신에 대한 태도가 양극단으로 고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음도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신도 그런 거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고, 느껴지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편이에요.” (참1)

“하늘에 있는 신이라기보다는 제 안에서 말해주는 느낌이 더 커요. 명령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선택할 때 기준을 조용히 알려주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신이 멀리 있다기보다는 제 안의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참5)

이처럼 신 인식은 외재적 초월성에 대한 확신보다는, 삶의 판단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내면적 기준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종교를 초월적 실재에 대한 신념 체계로 이해하기보다, 의미 해석 장치이자 자기 정체성 구성 기제로 보는 관점과 연결된다.

4. 종교의 심리·실존적 기능

종교는 북한 출신 청년들의 삶에서 다양한 심리적·실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기도와 종교 활동은 불안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하였다. 또한 종교는 자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종교적 실천을 통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고 삶의 태도를 재조정하는 경험

을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 활동을 넘어 자기 이해와 자기 재구성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더 나아가 종교는 탈복과 정착이라는 생애 경험을 우연적 사건이 아닌 의미 있는 과정으로 재해석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구성하며, 과거의 고난을 현재의 정체성과 연결 지었다. 이를 통해 삶의 단절 경험은 연속성과 의미를 지닌 서사로 재구성되었다. 참여자 2 또한 종교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고 말하며 종교가 감정 조절의 장으로 기능함을 강조하였다.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힘든 일들이 이어졌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삶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3)

“기도하면 마음이 좀 정리돼요. 안 하면 더 불안한 것 같고요.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감정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혼자 생각만 할 때보다 기도하고 나면 조금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참 4)

이는 종교의 전통적 기능 이론에서 강조하는 불안 완화 기능과 연결되며, 동시에 정체성 재구성의 실천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기능은 종교 사회학에서 논의되어 온 불안 완화 기능 및 의미 부여 기능과 맥을 같이 한다.

5. 종교 경험과 개인 주체성의 역동

종교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단일한 신앙 정체성으로 고정되지 않고,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의미가 재구성되는 유동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신앙 실천을 전면적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종교는 삶의 일부로 수용되었으나, 의사결정과 판단의 최종 책임 영역까지 위임되는 대상은 아니었다.

특히 삶의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 인식은 분명하게 개인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신의 존재와 개입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 선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신앙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결정성을 유지하려는 균형적 전

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종교는 의미 체계로서 기능하기보다 관계적 장으로 경험되는 경향이 강했다. 참여자들은 신앙적 확신보다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소속감, 정서적 지지를 중요한 경험 요소로 언급하였다. 종교적 실천은 신과의 관계라기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이러한 관계 경험이 종교 지속의 주요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참여자 4 역시 종교 공동체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선택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공동체의 조언을 참고하지만, 인생의 방향 설정은 외부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종교적 영향력과 개인 주체성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결국 참여자들의 종교 경험은 신앙적 확신·관계적 소속·주체적 책임 인식이 교차하면서 형성되는 복합적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를 고정된 신념 체계가 아니라, 개인의 생애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는 의미 실천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믿음도 있지만, 솔직히 사람들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안부도 묻고,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자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참 2)

“종교는 다니지만, 제 인생 결정은 결국 제가 하는 거죠. 기도는 해도 대신 선택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책임지는 건 항상 저 자신이라고 느껴요.” (참 5)

따라서 북한 출신 청년들의 종교 경험은 신앙에 대한 무조건적 동조도, 완전한 거리두기도 아닌, 선택적 수용과 전략적 참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출신 청년들이 인식하는 종교개념을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탐색한 결과, 이들의 종교 인식이 단일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의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출신 청년들에게 종교는 초월적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실존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유보적 인식 체계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들은 종교를 객관적 사실이나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

기보다는, 개인이 믿기로 선택하고 반복할 때 성립되는 체계로 인식하였다. 이는 종교를 고정된 교리 체계로 보기보다, 신념·정서·행동이 통합된 심리적 구성물로 이해한 Hood, Hill, Spilka(2009)의 종교 개념과 맞닿아 있다. 즉, 북한출신 청년들의 종교 인식은 신의 실존 여부보다 믿음의 형성과 유지 방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종교를 ‘확신의 체계’가 아닌 ‘가능성의 체계’로 이해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보적 태도는 북한출신 청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무신론적 국가 이데올로기와 권위적 진리 체계의 영향과도 관련될 수 있다. 절대적 진리가 국가에 의해 강하게 주입되었던 경험은, 이후 새로운 신앙 체계를 접하더라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판단하려는 태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종교 인식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라기보다, 절대화된 믿음에 대한 경계와 선택적 수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북한출신 청년들의 종교 경험을 ‘믿음의 결여’가 아닌, 비판적 성찰을 동반한 신중한 인식 방식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종교 인식은 탈북과 이동이라는 생애적 전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형성되었다. 탈북 및 제3국 체류 과정에서의 위기와 절박함, 정착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은 종교를 신앙의 대상이기 이전에 생존과 정서적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의미를 제공하는 대처 자원으로 이해한 Pargament(1997)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는 Pargament의 이론을 북한출신 청년의 생애 경험이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경험적으로 확장하였다. 즉, 종교는 사전에 선택된 신앙이라기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호출되는 해석 틀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탈북 과정이 개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가족의 생사, 이동의 성공 여부, 미래의 불확실성은 기존의 인식 체계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경험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에서 종교는 상황을 이해하고 견뎌내기 위한 의미 자원으로 작동한다. 이는 장보석(202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가 단순한 신앙 체계를 넘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논의를 북한출신 청년의 생애 경험 맥락에서 구체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신에 대한 인식은 단일한 믿음이 아니라 스펙트럼적 방식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에 대한 인식이 ‘믿는다/믿지 않는다’는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고, 인지와 믿음이 분리된 스펙트럼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은 마음에 비유되거나, 내면의 목소리로 해석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교리가 전제하는 초월적 존재 개념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종교적 상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종교를 고정된 교리 체계가 아니라 개인화·내면화 과정을 통

해 형성되는 의미 구조로 이해하게 한다.

이는 Mircea Eliade의 종교 이해, 특히 인간이 시간과 역사라는 조건 속에서 삶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종교적 상징과 신화를 형성한다는 논의와 연결된다. 본 연구는 Eliade의 이론을 북한출신 청년들의 구체적 경험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종교 개념이 문화적·경험적 조건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출신 청년들은 전통적 교리가 제시하는 신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맞게 신을 비유화·내면화함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종교 인식이 미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개인화·내면화된 종교 이해의 한 형태임을 시사한다.

넷째, 종교는 북한출신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적 자원으로 작용하면서도, 삶의 선택과 책임을 전면적으로 위임하는 대상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맹목적 몰입에는 거리를 두었으며, 궁극적인 결정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종교는 삶을 대신 결정하는 권위 체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보조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의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외재적 통제 장치로 보지 않고, 개인의 주체성과 공존하는 의미 체계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정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기결정과 책임을 요구받는 북한출신 청년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종교와 주체성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긴장 속에서 공존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종교 참여를 적응 효과나 의존성 중심으로 해석해 온 관점을 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 기독교 학교, 탈북청년 지원 기관 등 현장에서 북한출신 청년들의 종교 경험을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들의 종교 인식은 단순한 교리 수용의 결과라기보다 탈북, 정착, 관계 경험 등 생애 맥락 속에서 형성된 의미 구조이므로, 신앙 교육 과정에서 교리 전달 중심의 일방적 방식보다는 개인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종교가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담 장면이나 소그룹 활동에서 정서 표현과 안전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지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독교 공동체는 이들의 신앙 이해 방식을 신학적 잣대로 즉각 평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신앙 해석을 인정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교회 문화에 적응을 강요하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통합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북한출신 청년의 종교 경험을 단순히 ‘종교를 믿는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며 삶의 맥락 속에서 활용하는가라는 인식 차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이는 종교를 적응의 결과나 기능적 자원으로만 이해해 온 선

행연구를 넘어 종교 개념의 형성과 의미 구성 과정을 분석 단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연구 참여자가 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북한출신 청년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사례연구의 특성상 심층적 이해를 목표로 하였으나, 다양한 지역, 연령, 종교적 배경을 충분히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종교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교 개념의 변화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종교 유형 간의 비교 분석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 역시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방법론적 한계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연령, 종교적 배경을 포함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탈북 이후 정착 과정 속에서 종교 인식이 어떻게 변화·심화·전환되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종교 유형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신앙 배경에 따른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종교 개념의 형성과 의미 구성이라는 분석 틀을 양적 연구나 혼합 연구 방법으로 확장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출신 청년의 종교 경험을 ‘신앙 유무’나 ‘적응 효과’ 중심으로 설명해 온 기존 연구를 넘어, 종교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의미화하는가라는 인식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종교를 하나의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생애 경험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의미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실천적으로는 정착 지원, 상담, 교육 현장에서 북한출신 청년의 종교 경험을 단일한 신앙 체계로 전제하기보다, 종교에 대한 유보적 태도, 부분적 수용, 관계 중심적 경험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종교 기반 지원 역시 신앙의 강화보다는 심리적 안정, 관계 형성, 그리고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종교 기관뿐 아니라 정착 지원 기관과 상담 현장에서 보다 섬세한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유요한 (2016). 인간을 변화시키는 종교와 종교학: 엘리아데의 인간론과 교육론. **종교연구** 76(1), 1-22.
- 장보석 (202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로서의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와 통일**, 13(3), 147-172.
- 전주람·김은희 (2025). 북한출신 청소년 및 청년들의 기독교 영성 체험 내러티브. 한국학술정보.
- 정은미 (2014).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亞細亞研究**, 57(4), 142-173.
- 최지영·박희진·윤보영·한승대·한재현 (2021).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통일연구원.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2nd ed.)*. McGraw-Hill.
- Eliade, M. (1959).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Harcourt.
- Flick, U. (2018).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5th ed.)*. SAGE Publications.
- Hood, R. W., Hill, P. C. & Spilka, B. (2009).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 (4th ed.)*. Guilford Press.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Jossey-Bass.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SAGE Publications.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Guilford Press.
- 통일부 (2026).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지원 정책. <https://unikorea.go.kr>. (검색일 2026.02.04.)

크리스천 북한출신 청년들이 인식하는 종교란 무엇인가?

What is Religion as Perceived by Young Christian North Korean Defectors?

전 주 램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초록

북한출신 청년은 탈북과 남한 사회로의 이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의 전환기에 놓인 집단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의 재구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단계에 위치한다. 그러나 기존 북한이탈주민 종교 연구는 종교 참여가 사회적 적응이나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기능적 효과에 주로 주목해 왔으며, 북한출신 청년이 종교를 어떠한 개념적 범주 속에서 이해하고 구성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를 외재적 자원이 아닌 삶을 해석하는 인지적 의미 체계로 접근하여, 북한출신 청년의 종교 개념 구조와 그것이 삶의 의미 구성 및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출신 청년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종교 개념이 삶의 의미 구성과 선택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질적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북한에서 출생하여 청년기에 한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출신 청년 5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종교적 의미구성 관점과 종교 상징의 의미 구조에 대한 이론을 준거로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출신 청년들의 종교 인식은 초월적 존재를 전제로 하되 실존 여부를 유보적으로 열어두는 인식 구조 속에서 형성되며, 종교를 믿음의 선택과 반복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체계이자 도덕적·규범적 준거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의 종교 접촉은 탈북·이동 과정과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생존과 보호의 자원으로 경험되었으며, 주변 환경과 관계적 영향 속에서 형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신 인식은 '인지와 믿음의 분리' 속에서 마음에 비유되거나 창조주로 해석되거나 내면화된 존재로 재구성되는 등 스펙트럼적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종교는 심리적 안정, 자기 성찰, 소망의 매개, 삶의 의미 부여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동체 속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되 맹목적 몰입을 지양하고 자기결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주체성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종교를 기능이 아닌 인지적 의미 체계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접근을 확장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북한이주민, 북한출신 청년, 기독교, 종교 개념, 질적 사례연구